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5/1/2022

22-19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부활 제3주일
(Wh) 3rd Sunday of Easter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요한 21,17/ Jn 21:17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데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울리나)	951-454-3182
경의	김(데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5월 / May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For faith-filled young people

We pray for all young people, called to live life to the fullest; may they see in Mary's life the way to listen, the depth of discernment, the courage that faith generates, and the dedication to service.

부활 제3주일 (다해)

3rd Sunday of Easter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시편 66(65),1-2 / Ps 66(65):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Cry out with joy to God, all the earth; O sing to the glory of his name. O render him glorious praise, alleluia.

【제1독서/First Reading】..... 사도 5,27ㄴ-32.40ㄴ-41 / Acts 5:27-32, 40b-41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I will praise you, Lord, for you have rescued me.

【제2독서 / Second Reading】..... 묵시 5,11-14 / Rev 5,11-14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Christ is risen, creator of all; he has shown pity on all people. ◎

【복음 / Gospel】+ 요한 21,1-19 9(또는 21,1-14) / Jn 21:1-19 or 21:1-14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Jesus said to his disciples: Come and eat. And he took bread and gave it to them, alleluia.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5/1 10am	5/1 3pm	5/3 7:30pm	5/4 10am	5/5 10am	5/6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바로, 김아네스, 배바로,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Charles Angel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이디모테오&카타리나, 강프란치스코&마리아, 박안셀모, 정윤정, 김아텔라 가정, 이니콜라스&테레사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갑자기 지난날의 어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게 보여 집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요한 복음 21장은 뒤에 쓰여진 글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무언가 하긴 해야 하는데, 할 것이 없다고 느꼈는지 다시 고향의 어부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여러 제자들도 합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특별히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밤을 세워가며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보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무언가 잡아보았냐고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오른쪽으로 던져보라는 말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니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 옷을 주어입고 물에 뛰어듭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만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일까요.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은 믿음의 섬세함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사 안에서 찌들려 살았던 베드로의 믿음은 미약합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여 대접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요한:21:12)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분의 특성인 자상함과 친절이 베어져 있음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평온과 기쁨에 베어져 있는 친절과 사랑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시련 앞에 세번이나 주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에 부인했던,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위로하고 치유해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세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자신의 지난 과오 때문에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내 양들을 돌보아라"는 말로 용서하십니다.

방향을 잃고 지난날의 삶속으로 들어가려던 제자들에게 비록, 때가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강림의 이후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특히 베드로 단순하지 못한 믿음을 용서로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부활이 깊게 와 닿습니다.

김대선 신부

성인
말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 성 예로니모 -

Resurrected Jesus and HIS disciples

Jesus' disciples unexpectedly return to their workplaces. It looks strange to see the disciples return to their fishermen's jobs even after experiencing Jesus' resurrec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chapter 21 in the Gospel of John is added later.

However, when we take a closer look at the gospel, Jesus' disciples are somewhat funny. Especially, Peter seems to have felt that he needs a job, and he returns to his old fishing career. Other disciples join Peter. Although Jesus is raised from the dead, they weren't sure what to do and just did the fishing job.

They tried to catch fish all night at the Sea of Tiberias without any success. Then, a man on the shore asked if they had caught anything. The disciples answered no, and the man told them to cast the net over the right side of the boat. When they cast it, they could not pull it in because of the number of fish.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said to Peter, "It is the Lord."

Peter was so surprised, he tucked in his clothes and jumped into the sea. John recognized the resurrected Jesus, but Peter did not. Why? Peter did not have faith until then. John was the youngest, and he realized Jesus thanks to his genuine faith. Peter, who lived longer, was more tainted and his faith was weaker. Peter's faith may resemble those of ours.

Jesus shares breakfast with his disciples. When Jesus said, "Come, have breakfast," none of the disciples dared to ask a word. They realized Jesus, as HIS love and kindness were there. In other words, Jesus' resurrection is love and kindness, blessed with peace and joy.

It is fascinating to see Jesus consoling Peter. Peter denied Jesus three times at Jesus' hardship. Jesus asks three times,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could have replied simply, "I love you, Lord." However, because of his past faults, he says,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forgives Peter by saying, "Feed my sheep."

Jesus' disciples lost track and tried to return to their life before Jesus. Jesus instead prepares them for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Jesus lets Peter mend his weak faith by showing forgiveness. Those events once again tell us the significance of Jesus's resurrection.

Father Kim

성인
말씀

진실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해져야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끈기있게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 성녀 마더테레사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5/1 Sun 10am	박세실리아	임유스티나, 손데레사	오미카엘라, 안세실리아	강실비아	
3pm		Maryann Angel Michael Angel	Matias Kim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5/2 Mon	No Mass				
5/3 Tue	김소화데레사		박아가다	조율리안나	
5/4 Wed	박분도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5/5 Thurs	변리오바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5/6 Fri	김소화데레사		김마지아, 안세실리아	조율리안나	
5/7 Sat			김마지아, 안세실리아, 최클라라, 오미카엘라		
5/8 Sun 10am					
3pm		Cecilia Park Ester Le Blanc	Clara Choi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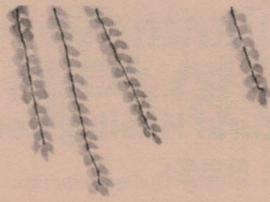
성모 성월 기도

마리아의 노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p style="margin-top: 10px;">+ 기도합시다.</p> <p>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p> <p>◎ 아멘.</p> |
|--|--|

본당소식 / Parish News

- ◆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5/6(금/Fri) 8pm
- ◆ 성모의 밤 (Crowning of Mother Mary)
일시(Date/Time): 5/7(토/Sat) 7:30pm
▪ 성모님께 드리는 글은 개인 봉헌때 봉헌됩니다.
- ◆ 평일미사(Weekday Mass)
남가주 사제 피정 관계로 5/10(화)~5/13(금)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Due to Priest Retreat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from 5/10(Tu) 5/13(Fri).
- ◆ Bishop's Dinner (주교님의 만찬)
일시(Date/Time): 5/14(토/Sat) 5pm
장소(Place): JW Marriott 74-855 Country Dr. Palm Desert
- ◆ 축하드립니다!
박안셀모 형제님 80세



너는 나보다
시간을 아끼는니?

요한리.17



주일학교 부활 계란 판매: \$767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4/14: \$625 4/16: \$591 4/17 10am: \$1,925 3pm: \$303 4/24 10am: \$1,088 3pm: \$194
사순희생예물	\$4,760
교무금 Envelope	4/17 & 4/24: \$2,200 성정자, 조은자, 김원규, 박주자, 박희일, 유길수, 오순옥, 차귀환, 김영희, 윤원균, 이경애, 박도원, 유재기, 신극우
교구발전기금 DDF	4/17 & 4/24: \$310 Rubyrose Bautista, 신극우
합계 Total	\$7,236

사순희생예물 \$4,760
(사순시기 동안에 모아 주신 희생예물은
Mary's Mercy Center에 기부됩니다.)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14. 미사 중 어느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나요?

예수님께서 "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48.51)라고 하셨던 말씀이 성체의 신비를 통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의 변화를 실제 변화(transsubstantiatio)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제 개인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단순한 육체적 음식이지만 성체와 성혈(거룩한 몸과 피)로 변화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일치시키는 영적 음식이며 사랑의 표지가 됩니다. 이러한 성찬 전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미 초대 교회부터 거행되어 온 예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이며 신앙의 신비입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